

中小企業과 技術革新(1)



金永吉
〈변리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담위원〉

目次

- I. 技術革新의 必要性
- II. 技術革新의 意義
- III. 技術革新의 評價要素

〈이번號에 全載〉

中小企業의 發展은 새로운 技術의 開發과 生産製品의 比較優位를 持續的으로 유지하는데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 科學技術의 發展과 技術革新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신사고방식과 신기술의 적극적인 개발 활용이 어느때보다도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에서 中小企業의 技術革新方法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中小企業技術革新 이렇게 하라”라는 책자를 최근에 펴낸바 있다. 필자는 그동안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에서 産業財産權에 대한 相談委員으로서 相談을 해오던 중에 中小企業에 있어서는 기술혁신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을 느낀바 있어 그 주요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요약 소개한다.

I. 技術革新의 必要性

우리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경영환경의 변화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의 중요성을 어느때보다도 강조하고 있을뿐 아니라 긴급성을 요구하고 있다.

과학기술은 개인생활의 질적 向上에서부터 산업경제의 발전, 국제경쟁력의 배양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현대를 가리켜 기술주도의 시대라고 하기도 한다. 이같은 시대 흐름을 인식한 각 국가와 기업은 첨단과학 기술을 중심으로 국가 및 기업이익을 앞세우고 치열한 경쟁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일본·미국·EC 등 선진국들은 「세계의 공장」에서 이제는 「세계의 연구소」로 변신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여건의 변화는 우리 기업에 21세기를 대비할 새로운 대처방안의 강구를 요구한다.

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우리경제가 현 상황을 타개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으로서 기술혁신(기술변화·기술개발)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기술외적인 기업환경의 변화도 기업에게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과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기존의 임금경쟁력·자본비용의 상대적 우위성·규모의 경제성 등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기술력의 우열에 근거하여 평가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어떤 기업이 경쟁구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선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다른 경쟁기업에 뒤떨어지지 않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최근들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도 기술혁신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환경이 악화되면 될 수록 기술혁신을 적극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런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술혁신이 그렇게 쉽사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특히 구조적인 면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제약을 비교적 많이 받고있는 중소기업으로서 더욱 그러하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또한 이를 통한 우리 산업의 재도약을 모색하는 것은 그동안 생산발전을 주도해온 기계, 전자, 자동차, 섬유, 철강, 조선 등을 포함한 존재 산업으로는 치열한 수출경쟁의 파고를 극복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반기술이 취약하고 설계엔지니어링 기술과 생산가공기술이 선진국의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생산구조는 이제 기술혁신없이 세계시장 진출이 어려움을 실감하고 있다.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볼때 전체기업의 79%를 상회하는 중소기업체가 기술혁신의 필요

성을 인식하고 또 그에 앞장선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도약에 있어 당연히 제1차적 전제요소인 것이다.

일본이 기술개발 전략을 전개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재래공정 및 제품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기능을 多岐化하고 성능을 개선하여 편의도를 높이고 재료를 바꾸어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컴퓨터, 반도체, 신소재, 정밀화학, 유전공학 등 첨단산업을 철강, 기계, 자동차, 조선, 전기, 화학, 섬유산업에 접목·응용하여 계속 수출주도 산업으로 성장발전시킨 것이 주효하여 오늘날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

지난 89년말 상공부가 첨단산업발전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産·學·官의 각계 관련 전문가들을 망라하여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정밀화학, 생물산업, 광산업, 항공산업 등 7개 분야를 두고 첨단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도 이제 우리 산업계가 지향할 길은 첨단기술의 개발을 통해 이를 중소기업에 접목시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고품질,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을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주도하도록 산업구조를 전면 개편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간이 환경의 지배를 받듯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있어서도 경영환경은 무시 못할 기업의 생존조건이다.

이질다종한 중소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제요인은 매우 많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을 둘러싸고있는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모든 기업은 새로운 경영환경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 기업의 대규모화, 독과점화 등의 현상이 야기되었던 때의 소위 4M(Mass Production, Mass Media, Mass Sales, Mass Consumption) 시대의 메리트는 이제 점차적으로 사라져가고 E. F. 슈마허 박사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과 같이 작고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소규모 기업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중소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경영환경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영환경의 변화

세계경제는 고도성장 시대에서 저 성장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이제 양 위주의 대량생산체제에서 감량경영, 또는 질 중심의 생산시스템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생존키 어렵게 되었다. 기업의 존속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쟁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 시스템뿐만 아니라 경영원칙에 있어서도 원자재와 에너지 문제, 임금 및 서비스 가격의 상승문제 등에 봉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하락과 제품수요의 감퇴로 인하여 기업간의 경쟁은 날로 격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쟁환경의 변화는 대기업은 물론이며, 중소기업에 있어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였으며 그 생존을 위한 일환책이 바로 제품개발, 신기술개발, 기존제품기능의 개선 등 기술혁신의 요구인 것이다. 즉, 창조적 개발없이 기업은 존속성장하기에는 어려운 기술혁신의 시대에 당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환경을 산업구조편성면에서 살펴보면, 과거에는 산업구조의 편성이 제품별 체제로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었으나(예를 들면 기계공업의 경우 자동차·공작기계·기전기기 제품 등등, 식품공업의 경우도 빵·냉동식품·가공식품·육가공제품들과 같이 종렬편성되고 있었다). 이것이 점차적으로 기능중심인 주택, 환경개발산업, 해상 운수산업, 교육의료산업 등과 같이 횡적 방향으로 편성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욱이 제품에 있어서도 다수의 하드제품과 소프트웨어가 유기적으로 복합화된 시스템 제품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을 볼때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의 과제는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또한 과거와 달리 더욱 고도화·정보화·국제화 되어가는 기업경쟁환경의 변화는 중소기업에게 기술혁신만이 가장 확실한 생존요건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다.

2. 수요환경의 변화

최근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소비자의 수요구조는 고급화·개성화·다양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일반소비자들은 자기의 개성에 따라 자기만족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품은 더욱 다양화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다품종 소량생산화, 고품질, 고기능, 질높은 서비스 등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소비구조의 변화는 중소기업의 제품수명을 짧게하고 기능 향상을 위한 고정도·고정밀화가 요청되고 있다.

또 이러한 수요환경의 변화는 기업에게 끊임 없는 기술혁신을 통한 제품을 공급해 줄것을 요청하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만이 생존의 길을 밟을 수 있는 것이다.

II. 技術革新의 意義

여기서 기술혁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1971년, 영국 석세스대학 과학정책연구부가 실시한 SAPPHO(Scientific activity Prediction from Patterns with Heuristic Origins) 프로젝트 보고서에 의하면 기술혁신(Innovation)이란 「새롭게 제조된 제품의 시장화 또는 새로운 기술에 의한 공정이나 장치의 시장화에 관계된 기술적·공업적 또는 상업적인 프로세스」라고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혁신이란 「시장화」 또는 「시장화에 관련된 프로세스」라는 점이었다.

따라서 여기서 이용된 수단으로서 기술의 신구는 1차적인 문제가 되지않는다. 혁신은 크게 시장의 측면에서보는 유형과 기술의 측면에서보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시장의 측면에서본 혁신 유형

시장의 측면에서본 혁신의 유형은 ① 진화형(신규시장 개척형)과 ② 적응형(기존시장 경쟁형)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는 기술특성에 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진화형」에는 침입형과 돌연변이형이 있다. 또 적응형은 외부환경 변화에 추종하는 형

에서 진행되는 혁신을 의미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자기조직의 개혁에 의해서 야기되는 혁신과 외부와의 관계를 바꿈으로써 유발되는 혁신이 있다.

이에 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 태양전지와 같이 완전히 새로운 제품개발이 시장화에 연결된 경우에는 「진화형」에, 또 원료공급 환경이 변화하거나 종래부터 사용하던 원료공급이 중단되거나 입수가 곤란한 경우, 다른 재료 또는 원료에 의해서 종래와 같은 기능을 갖는 제품개발 시장에 성공한 경우 등이 「적응형」의 혁신에 해당한다. 첨단기술영역에 있어서 기술혁신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수명이 짧고, 또 시장규모도 작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비교적 경영기반이 약체인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외부환경 변화에 추종해가는 형의 혁신은 기업의 존립을 좌우하는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술의 측면에서 본 혁신유형

기술혁신을 시장화への 프로세서라고 보는 한 그것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술은 반드시 첨단적인 신규기술일 필요는 없게 된다.

기술을 서비스재도 포함한 넓은 의미의 財·상품의 생산수단이라고 정의하면 기술혁신에는 수단으로서의 신규성과 재료로서의 신규성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 경우, 財와 수단이 완전히 새로운 경우와 財 그 자체에는 신규성은 없지만 생산수단이 완전히 새로운 생산수단에는 종래 방법에 비해서 신규성은 없지만 생산된 財에 신규성이 있는 것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財에도 수단에도 신규성이 없으면 기술혁신은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이 경우에는 기술혁신을 「시장구조 또는 산업구조에 새로운 질서 또는 가치를 형성시키는 프로세스」로보다 폭넓게 정의하면 광의의 기술혁신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기술의 측면에서 본 기술혁신과 시장의 측면에서 본 기술혁신의 관계를 정리하면 별표와 같다.

기술의 측면에서 본 기술혁신	시장의 측면에서 본 기술혁신
product innovation	진화형(이입형)
process innovation	적응형 / 진화형
product & process innovation	진화형(돌연변이형)
management innovation	적응형
system innovation	적응형 / 진화형

Management innovation은 제품으로서 신규성은 없지만 TQC 등 경영기업의 도입에 의해 제품의 신뢰성 향상, 코스트다운 등을 일으켜 경영전략의 혁신이 시장구조에 변화 또는 제품에의 새로운 가치를 산출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품질관리·생산관리·경영전략 등의 혁신은 이제 중소기업에서도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제품의 대외 경쟁력 강화에는 「Management innovation」의 역할이 매우 크다. 신규 제품개발을 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하게 매출액을 늘리고 있는 기업에는 이러한 형의 기술혁신을 행하고 있는 곳이 많다.

system innovation은 현재 중소기업이 직접 활용하고 있는 곳은 적다. 그러나 예를 들어 고도정보화 시스템의 보급은 대기업 및 유통·소매업만이 아니고, 중소 제조업에도 가까운 장래 극히 큰 기술혁신을 일으킬 것이다. 새로운 시스템의 제공은 공장내·공장간은 물론, 하청구조, 산업구조, 유통·시장구조 등에 더하여 사회구조 속에도 새롭게 질서와 가치를 형성해 가고 있고, 장래예측되는 기술혁신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제2차 산업혁명이 기술 속에 과학을 도입함으로써 일어났다고 한다면, 「system innovation」은 생산현장에서 시장에 이르기까지의 구조를 시스템화하는 것에 의해 새로운 기능을 부가시켜 제3의 산업혁명을 일으킨다고 말해주고 있다. 때문에 이것은 중소기업의 대응이 가장 강하게 기대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러한 혁신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기초하여 기술혁신의 의미를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 ① 새로운 물질로 유사제품을 가공하는 것
- ② 개선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기존 물질을 복합하는 것

③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기존제품을 발굴해 내는 것

④ 새로운 기능을 수반하는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

⑤ 새로운 또는 변화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생산비용을 저하시키는 새로운 공정의 도입 등이 밖에도 기술혁신의 정도에 따라 점진적 기술혁신, 급진적 기술혁신, 조직적 기술혁신 등으로 나누는 견해가 있으며, 기술혁신이 일어나는 각 과정의 각 단계별로 기술혁신을 유형화하기도 한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기술혁신의 유형분류에서 더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기술혁신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① 제품의 가공·조립 등과 같은 제조 작업 자체의 개선 내지 개발

② 제조현장의 기계 등에 대한 보전 혹은 수리작업의 개선 내지 개발

③ 제조현장의 관리작업의 개선 내지 개발

④ 공정 및 부품의 설계에 대한 개선 내지 개발

⑤ 제품설계의 개선 내지 개발

⑥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개발

이와 같은 기술혁신을 발생하도록 하는 요인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개발에 투입하는 자원량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술혁신을 위한 자원은 지적에너지와 물적에너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적에너지는 사람의 사고능력 즉 사람자체의 능력과 이것을 지지하는 과거의 축적된 정보, 숙련 등이 있고, 물적에너지는 개발에 필요한 실험용 설비 등이다. 결국 기업의 기술혁신의 성공여부는 자원을 어느 정도 집중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기술개발자원의 투입량과 기간의 범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단 시간내에 다량투입을 하는 경우는 새로운 경쟁상대의 출현, 인건비 상승, 수출부진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반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경우는 기업자체내에 기술개발관계부서를 두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기술개발을 실시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이와같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는 것은 주로 대기업이나 첨단벤처기업위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중소기업은 그 자원의 제약상 이를 실시하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중소기업들은 각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III. 技術革新의 評價要素

기술혁신의 평가는 단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를들면 제품의 기술혁신도가 높아도 시장요구에 맞지 않으면 시장화가 곤란하여, 그만큼 기술혁신성이 부족한 것이 된다. 또 역으로 제품신규성이라는 점에서는 혁신도가 낮아도 시장요구에 부합되어 신시장 확보에 성공하면 기술혁신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다음에 지표는 기술혁신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충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기술혁신의 평가에 있어서의 주요개념들이다.

① 리스크 : 기술혁신을 추진할 조직이 직면할 위험의 크기

② 관리수법 : 관리기술이 성공·실패의 차이에 관련하고 있는 정도

③ 경영력 : 기술혁신을 담당할 조직의 경영력

④ 조직 : 기술혁신을 담당할 조직의 형태 및 분류

⑤ 니즈(needs) : 시장조사나 기타방법에 의해서 고객의 요구가 어느정도 이해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

⑥ 정통도 : 기술혁신을 담당하는 조직이 기술혁신에 의한 기술적 문제나 시장에 어느정도 정통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 즉, 전문성

⑦ 개발효율 : 기술혁신에 관련한 개발효율

⑧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 외부의 연구·기술단체와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network)의 효율

⑨ 경쟁상황 : 기술혁신을 담당할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경쟁상황

⑩ 마케팅 : 기술혁신을 담당할 조직이 마케팅에 투하한 노력의 정도

이것들중 ⑤·⑧·⑨·⑩은 소위 환경 요인에 해당하며, 기업자신이 자기의지에 의해서 조작 불가능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②·③·④·⑥은 제어(조작) 요인이 된다. 또 리스크에도 여러가지 측면이 있다. 이처럼 위의 평가요소를 내부요인과 외부요인, 또는 제어요인과 환경요인으로 분류하고, 그것들중 개개의 요소를 더욱 세분화하면 기술혁신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술혁신의 평가에 있어서는 업계의 체질·지위·지역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라에 따라서는 규격·규칙·유통구조의 복잡도 등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외부요인은 그 과제를 해결할 인력의 부족으로 기술혁신의 저해 요인으로서 작용하기도 한다.

1. 기술혁신의 주체

중소기업이 산업계에 있어서의 기술개발과 혁신의 주체임을 설명했다. 그런데 기술혁신은 산업계에 있어서는 기업이 일으키는 것이지만, 기업내에 있어서는 누가 어떤 형태로 기술혁신을 일으키고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기술혁신은 그 발생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업내 개인의 창조적인 발상 또는 발상전환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러나 아무리 발상이 풍부하고 또 독창적이어도 그것을 기업화할 때까지는 주위의 협력자 또는 이해자가 없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만일에 기업화에 성공해도 그것을 시장에 낼 단계에서 실패하면 제품은 완성되어도 그 시장화는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의 발명이 혁신에 연결될때까지 각각 중요한 역할을 완성하는 인물이 기업내에 필요하다고 일컬어지는데, 그것들을 역할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기술혁신 담당자 : Technical Innovation
- ② 사업혁신 담당자 : Business Innovation
- ③ 최고책임자 : Chief Executive
- ④ 생산담당자 : (Product Champion)

①은 개발 또는 기술혁신 계획에 있어서 기술적 측면에 큰 공헌을 달성하는 인물을 의미하고, 많은 경우 신제품 또는 신프로세스의 발

명자 자신인 일이 많다. ②의 사업 innovator는 개발 프로젝트 전체의 운영을 담당하는 관리조직 속에서 실제상 책임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기술부장·연구부장 등의 지위에 있는 인물인 경우도 있으며, 판매부장 혹은 기사장일 경우도 있다. 중소기업에서는 이 인물이 동시에 조직의 최고 책임자인 경우가 많다. ③의 최고책임자는 대개 경영자를 의미하지만 각 부문장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3종류의 역할이 각각 다른 인물로 모여있으면 기술혁신에 성공하는가 하면 오히려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의 중요한 역할을 연출하는 인물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④의 Product Champion이다. 프로젝트의 중요한 단계에 있어서 적극적인 동시에 열심히 그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기술혁신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는 인물이다. 말하자면 「연구개발벌레」적 존재는 기술혁신을 성공시키는데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기술혁신에 성공하는 기업의 대부분은 경영자가 기술계 출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인이 ①~③의 역할을 행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내에 사장과 같은 정도의 재직경험을 갖고, 더욱이 전문적인 특수한 기능을 갖는 「개발벌레」적 존재가 등장하는 요건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2. 기업성장의 원동력

앞에서 논했듯이 혁신(Innovation)이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의 공통점은 변화를 통해 새로움(Newness)이라는 가치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특히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혁신」은 「기술」과 같은 의미로 종종 인식되고 있다.

「기술」은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하는 데에 포함된 인과관계상의 불확실성을 낮추어 주는 도구적인 행위를 위한 디자인이다.

기술은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다. 즉 물질 혹은 물질적인 목적으로 구현시키는 도구를 구

성하는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도구를 위한 정보베이스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다.

「혁신」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물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관련된 기술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혁신은 기업성장 및 경제 활동의 원동력이 된다. 슈페터(Joseph A. Schumpeter)는 자본주의의 엔진을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추진력은 자본주의 기업에 의해서 창출된 새로

운 소비자제품, 생산과 수송의 새로운 방식,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산업조직형태로부터 온다고 말하면서 그 기본 동인은 바로 혁신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새로움」이라는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혁신은 제품의 질적향상,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산업발전, 생활수준향상 등을 위한 주요한 원동력은 물론 기업경쟁력의 핵을 이루는 생산성 향상과도 직접 연결된다. <계속>

우수발명의 시작품제작 국고지원 안내

◆ 신청기간 ◆

1992. 1. 3~1. 31까지

◆ 신청자격 ◆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개인(학생포함) 또는 중소기업 기본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

◆ 지원내용 ◆

- 학생 및 영세발명자
시작품 제작비용의 전액 범위내
- 개인발명자
시작품 제작비용의 90% 범위내
- 중소기업자
시작품 제작비용의 80% 범위내
(※ 단, 지원내용은 고시변경에 따라 일부조정될 수 있음)

◆ 제외대상 ◆

- 권리설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권리
- 신청일 이전에 제3자에게 이전된 권리
- 신청일 현재 소멸된 권리

◆ 신청방법 ◆

- 신청서교부 및 접수처
한국발명특허협회
- 신청서교부 및 접수처 : 한국발명특허협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3-19, 예림빌딩)
- 문의처 : 한국발명특허협회 발명진흥부
(☎ 568-8267, 557-1077/8)